

불자 세상보기



윤세원 인천대교수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사실상 경선 체계로 굳어졌다고 교계 미디어들이 전하고 있다. 경선의 당사자들은 특정 정책모임들의 지지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라고 한다. 불교광장이 출범하고 추대위가 구성될 때까지만 해도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될 듯 보였다. 하지만 오월동주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숨겨진 의도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합의 추대의 꿈은 남가일몽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원천은 파당이고, 파당의 관심은 잦바지 엮음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참 좋은 이름이다. 정책모임, 정책모임은 총무원장 선거를 전후하여 종권 획득을 위한 파당을 미화한 표현이다. 획각 미사리구로 치장을 해도 패거리라 패거리일 뿐이다. 선거라는 것이 아무리 파당을 부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불교 종단 내에서 종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와 실천방법의 제시도 없이 오로지 소임 때문에 생기는 파당은 파화합의 주범일 뿐이었다. 종단 내에 정책모임이라는 파당적 성격의 모임들이 생겨나는 것은 승가정신의 실질을 보여주는 일이다. 승생의 고(苦)가 안중에 없는 모임, 수행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출가자의 집단의 출현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쟁점은 추대가 아니라 현 총무원장의 연임문제 옮겨진 상황이다. 그것도 행될 듯 보였다. 하지만 오월동주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숨겨진 의도들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합의 추대의 꿈은 남가일몽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원천은 파당이고, 파당의 관심은 잦바지 엮음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참 좋은 이름이다. 정책모임, 정책모임은 총무원장 선거를 전후하여 종권 획득을 위한 파당을 미화한 표현이다. 획각 미사리구로 치장을 해도 패거리라 패거리일 뿐이다. 선거라는 것이 아무리 파당을 부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불교 종단 내에서 종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연임되지 대상자의 표리부동한 처신으로 보기에는 아쉬움 많이 보인다. 투명하지 못한 행적에,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는 기어 가까운 언행은 올장적 기준은 커녕, 건강한 상식의 사회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아마도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의 연관 검색어로는 '종단정치·종권장출·종단권력·이권밀약·계파·문중' 등이 될 것이다. 맑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 말들은 조계종 고위 소임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계종의 승가 구성원들은 종단이 권력 쟁취와 계파 간의 이익 배분을 위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종단과 종단 소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기 과신인가? 자기비하인가? 조계종의 승가는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매번 반승가적 작태로 종도들에게 고통 안겨주고, 사회의 빈축을 사 왔다. 이는 불조계사 부속하고 종도들의 공양과 외호로 갖추어지는 수행자의 위의를 스스로 포기해 가는 일이다. 조계종의 승단은 조계종단의 운영을 정

치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신들을 정치가로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권위주의 시절의 정치가들처럼 특권을 가진 계층이라 온갖 법제행위를 자행해도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보다 더한 정체성에 대한 자기비하가 어디 있겠는가! 단언컨대, 이견 해탈행위이다. 중생세도의 힘과 승가의 위 및 권위는 지계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계를 지키는 행위와 율에 따르는 생활을 하는 무리를 우리는 승가라고 부르고, 그 구성원들을 존경하고 공양한다. 선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종법의 규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지 그 과정에 반승가적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종단 같은 상징성과 그 내실을 일치시키는 최소한 규범이다. 선원 수좌회의 입장표명과 묵언정진은 종단의 일과 세속사를 혼동하는 전도몽상에 대한 경종이고, 소임의 힘으로 지계와 수행을 좌지우지하려는 해탈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참은 승가다운 승가에 대한 의욕이다.

社說

영문표기 등 '고려대장경' 세계화 나서자

“고려대장경에는 경·율·론 삼장 외에 예세이, 여행기, 주석 등 광범위한 불교 전적이 포함돼 있다. 삼장(三藏: Tripiaka Koreana)이 아니라 한국불교전적(Korean Buddhist Canon) 혹은 ‘고려대장경’을 그대로 음역해 사용해야 한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가 9월 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고려대장경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체계’를 주제로 열린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국제학술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버스웰 교수는 대장경을 글자 그대로 ‘삼장(Tripitaka)’ 또는 ‘세 개의 바구니’ ‘세 개의 보관소’로 부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버스웰 교수에 따르면 팔만대장경 같은 동아시아 장경은 ‘거대한 보관소의 경전’이라 불렀는데, 인도 삼장의 범주에 가문 듯한 영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고려대장경의 방대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Tripitaka Koreana’라는 말보다는 간단히 ‘Korean Buddhist Canon(한국의 불

교 경전모음)’이라 부르든지 아니면 원래 명칭을 그대로 음사해 ‘고려대장경’이라고 불러야 한다는게 버스웰 교수의 말이다. 루이스 랭가스터 교수도 “고려대장경 연구에는 철학, 사회적 네트워크, 식물학, 물리학, 건축학, 고고학, 역사학, 정치학, 예술, 언어학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석학들의 대장경에 대한 이같은 새로운 주장은 한국불교의 상징인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이 될 것 같다. 실제로 고려 대장경은 일본장경 연구자들이 대장경판에 담긴 역사적 실제와 문화적 가치를 상당부분 왜곡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려대장경이 우리 민족문화유산,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원천자료의 수집·정리, 학문적 연구, 실용화·대중화 작업이 보다 객관적이고 활발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대장경의 가치 복원은 한국불교의 미래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명상 붐 시대, 불교계의 역할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힐링’ 트렌드 이전에는 ‘웰빙’ 열풍이 있었고 이를 통해 명상 산업들은 본격적인 대중화·상품화 시대에 들어섰다. 이미 명상은 수련 중심의 소수 동호회 차원을 넘어 음악, 서적, 부대상품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산업 단계로 성장했다. 실제 명상을 필두로 한 미국 내 마음산업 규모는 60억 달러(한화 8조원)에 이르며 매년 1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우 1980~90년대 일본 불교의 ‘젠(ZEN)’ 열풍이 불면서 마음 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 같은 현상은 체계적인 매뉴얼화가 되면서 자기 계발 프로그램으로 보편화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국식 명상법이 산업화가 돼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9월 6일 불교평론은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가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참선과 명상의 근본 목적, 깨달음과 치유의 대상과 방법, 개인과 사

회에 주는 효용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는 2백여 청중이 모여 명상 붐을 실감케 했다. 실제 몇몇 발제들은 한국불교가 이 같은 명상 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 주기 충분했다. 특히 인경 스님은 “힐링 문화는 새로운 사조로서 중요한 사회적 흐름이지만 ‘마음 산업’으로 산업화되어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고 근본적인 본성과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찌 보면 마음 산업의 종가는 불교이다. 현대 명상의 토대는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치열한 수행법인 선(禪)이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은 채 대중적 치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때이다.

사부대중 칼럼



부명스님 백령도몽은사주지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반에서 불교를 믿는 친구는 혼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묻는 질문에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할머니들도 절에 오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다, 인연법이 지 뭐.” 전국의 어느 사찰 어느 스님, 어느 불자라도 붙잡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절들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근간이 불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시중의 문화는 근대화의 성장에 휘둘러 굴절된 문화로만 치달리고 있고 세월의 풍상에 산화된 역사와 전통 문화는 박물관의 박제품이 되어 묵은 먼지만 켜켜이 쌓인 모습으로 박물관의 박제품이 되어 관람의 대상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되고 있다.

타악공연 ‘템스’, 두 달간의 만행과 유감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위기의 불교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 곳곳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나름의 자각을 외면 못하고 일관된 관광객 시대에 걸맞은 불교적 한류 트렌드를 구축해 문화선양을 통한 종교를 꾀하고자 ‘템스’라는 불교적 소재의 새로운 장르의 타악 공연을 만들어 전년도 ‘이빛고’에 이어 금년도 두 달간 공연을 하였다. 분명 희망의 빛과 길은 보였다. ‘템스’는 지상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며 매스컴을 뒀다. 방송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뉴스와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란다. 다시 말해 불교적 공연 아이템인 ‘템스’가 ‘이빛고’에 이어 2년 만에, MBC, YTN 뉴스, SBS 문화가 산책, KBS 코리아트렌드를 비롯한 일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수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한 공연을 관람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공연전문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의 한편을 감당할 만한 공연이라는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 이를 놓고 볼 때 순전히 그 모든 평을 전적으로 수용치 않

는다 하더라도 외부와 외형으로는 나름의 성공적인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본다. 하지만 공연의 이해득실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유료 관객을 조계사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이끌어오지는 못했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 불교 일번지로 불리는 조계사는 1938년에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창건된 도량이다. 하지만 불교적 소재와 테마로 기획, 제작된 힐링타악 공연 ‘템스’는 대한불교 조계종 역사기념박물관 내 전통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전통과 역사를 계승해야 할 책무를 지닌 그 도량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 불교계의 많은 분들은 운만 떴던 문화컨텐츠 개발에 투자를 해야만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물론 말로만이다. 누구를 위한 종단이고 무엇을 위한 도량인가? 개인적으로 수행자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대출과 채무, 그에 따르는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간의 심성을 좌악으로까지 이끌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느꼈다. 마음 한 번

잘 못 일으킨 탓으로 몸 고생 또한 장난이 아니었다. 사성제의 고평과 지옥地獄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져 있을 뿐이었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불교를 스님 혼자 고민하고 애쓰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냥 평범하고 편하게 지내소. ‘다, 인연법이 지 뭐.’ 하는 판단 섞인 염려를 애들러 듣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작심하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후회는 없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눈에 드러나는 공연임에도 그곳에서 불교의 희망과 미래를 보려했던 그 뜻에, 공감과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해 주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주었던 스님들과 불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참담했을 일이었다. ‘템스’의 미래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기만 하다. 다가올 한국 불교의 앞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발원해 본다. 공연기간 동안 힐링 타악공연 ‘템스’를 아낌없이 후원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케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